

KIA, 오늘 엔트리 완성... 윌리엄스 감독 청사진은?



브룩스

토요일 리그 개막전 상대는 천적 두산... 다음주 홈 개막전은 NC 윌리엄스 감독, 강팀 상대 기선제압 고심... 브룩스·이이리 선발 출격 5선발 미확정·오늘 연습경기서 불펜 결정... 장민기·이승재 '관심'

KIA 타이거즈의 윌리엄스 감독이 1일 연습경기를 통해 최종 선수를 선택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오는 3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KBO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연다. 유독 약했던 상대와 장소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된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초반 기싸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개막 시리즈 이후 일정도 만만치 않다. KIA는 6일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을 치른 뒤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특별한 전력 강화 없이 양현종의 유출만 있었던 팀 전력, 시작과 함께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게 된 만큼 초반이 중요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개막 전 마지막 연습경기를 갖고, 초반 기싸움에 나설 이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기를 통해 윌리엄스 감독의 마지막 고민 지점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날씨 변수' 등으로 선발진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일단 개막 시리즈는 브룩스와 이이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에이스' 브룩스가 지난 22일 NC전에 이어 28일 키움전까지 10.2이닝을 가동하면서 3일 개막전 출격 준비를 끝냈다. 2선발로 급부상한 이이리도 비로 29일 선발에 나서지 못했지만, 30일 KT전에서 불펜으로 나와 2이

닝을 소화하면서 KBO리그 데뷔 준비를 완료했다. 뎅넨은 30일 KT의 막강 타선에 흔들릴까 했지만 '진짜 무대'에 앞서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계획대로 새 리그 도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남은 선발 후보들이 예정대로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민우가 비에 막혔다. 이민우는 27일 키움전 선발을 준비했지만, 비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30일 KT 퓨처스팀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 임기영과 실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됐다. 결국 이민우는 합평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는 것으로 실전을 대신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치밀하게 로테이션을 계산하면서 초반 싸움 카드를 준비했던 만큼 초반 선발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불펜의 최종 테스트도 관심사다. 윌리엄스 감독은 시범경기 최종전이 진행됐던 30일 이이리는 물론 장민기, 이승재 등 이번 캠프에서 눈여겨본 '루키' 들을 불펜으로 투입해 경쟁력을 살펴봤다. '루키' 들은 썩직한 피칭으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개막 엔트리 여필을 했다. 하지만 '진짜 무대'에서는 경험도 중요한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1일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불펜의 남은 1-2 자리를 결정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이리

전열 가다듬은 광주, 4월 반격 나선다



광주FC의 새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가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조선대와외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7R' 4일 홈에서 인천전 호남대 이어 조선대와 연습경기 헤이스·알렉스, 팀 적응 완료 펠리페와 승점 사냥 출격 대기



광주FC의 전용구장 첫승을 위해 새 외국인 선수들이 공-수 전면에 선다. 3월 강행군을 펼쳤던 광주는 지난 20일 제주 원정이 끝난 뒤 전금 같은 A매치 휴식기를 갖고, 재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는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7라운드 경기를 통해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4월 반격'을 준비하는 광주에는 새로운 전력이 가세한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헤이스와 세르비아 국가대표

인 중앙 수비수 알렉스가 팀 적응을 끝내고 K리그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서 실력을 점검 받고 새 팀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 27일 호남대와 연습경기를 통해 시동을 걸었던 헤이스와 알렉스는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마지막 점검 시간을 가졌다. 선발로 출전한 헤이스와 알렉스는 나란히 후반 25분까지 소화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날 펠리페까지 선발로 나서 광주 순위 싸움의 키플을 전 '외국인 트리오'는 전용구장 첫승을 위해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리허설 결과는 '합격점'이었다. 두 차례 실전을 통해 알렉스는 아슬마토프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을 자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188cm의 알렉스는 큰 키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볼 처리 능력과 빌드업에 강점을 보여주면서 '아슬마토프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알렉스는 조선대와외의 연습 경기에서 정확한 통력으로 볼 배급을 하고, 긴 다리를 활용해 공을 누아 채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호남대와외의 첫 실전에서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던 헤이스도 '결정력'을 보여줬다. 헤이스는 조선대와외의 두 번째 실전에서 전반 39분 흘러나온 공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박수를 받았다. 헤이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키퍼로 나서 날카로운 킥도 선보였다. 김호영 감독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다. 새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씩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우리 조직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팀 전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헤이스는 펠리페와도 인연이 있는 만큼 두 공격 듀오의 호흡이 기대된다. 이날 헤이스에 앞서 펠리페도 골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트리오'는 4월 반격을 위한 체비를 마쳤다. 경기는 후반 종료 직전 터진 김호영의 골까지 더해 광주가 3-0 승리로 장식했다. 팀 적응 끝난 헤이스와 알렉스가 광주 전용구장 첫승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1위 고진영 vs 2위 박인비

오늘 LPGA ANA 인스피레이션 1R 같은 조... '호수의 여왕'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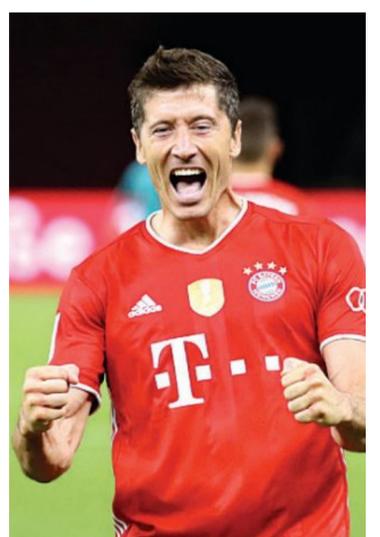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 2위인 고진영(26)과 박인비(33)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 달러) 1라운드를 같은 조로 치른다.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이번 대회 조편성을 보면 고진영과 박인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함께 1라운드 경기를 하게 됐다. 1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며 티오프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오전 4시 33분이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은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개막한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2위 박인비 역시 2013년 우승자다.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와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메이저 3승째를 노리고, 박인비는 2018년 이 대회에서 '1박 2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털어낼 기세다. 지난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이미림(31)은 에리아 푸타누간(태국), 오스틴 언스트(미국)와 한 조로 경기한다. 세계 랭킹 3위 김세영(28)은 제시카 코르다(미국), 조피아 포포프(독일)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 '부상'에 뒤흔 '비상'

무릎 치료 4주 소요...분데스리가 9시즌 연속 우승 '대형 악재'

폴란드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가 무릎을 다친 '독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3)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도 비상이 걸렸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강 클럽 뒤흔은 지난 31일 구단 홈페이지에 "오른 무릎 인대를 다친 레반도프스키는 약 4주 동안 전력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대표팀의 주장인 레반도프스키는 29일 열린 안도라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I 조 2차전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 넣어 폴란드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2-0으로 앞선 후반 18분 교체됐다. 이후 폴란드축구협회는 "레반도프스키는 4월 1일 열린 잉글랜드와의 월드컵 예선 원정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는다"면서 뒤흔으로 돌아가 재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이런 부상은 보통 치료에 5~10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뒤흔 의무팀이 검사한 결과는 달랐다. 레반도프스키는 한 달가량을 그라운드에서 설 수 없을 전망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25경기에서 35골을 포함해 뒤흔 소속으로 공식 경기 42골을 기록 중이다. 분데스리가 9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뒤흔에 레반도프스키의 전열 이탈은 대형 악재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선두를 달리는 뒤흔은 당장 4월 4일 2위 RB 라이프치히와 맞대결을 벌여야 한다. 두 팀의 승점 차는 4점이다. /연합뉴스



4월 8일과 14일에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도 예정돼 있다. 1971-1972시즌 게르트 뮐러가 세운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40골) 경신을 바라보던 레반도프스키에게도 이번 부상은 아쉽기만 하다. 뒤흔은 올 시즌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연합뉴스